

---

## 강원도 말을 찾아서

김봉국 ·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나 ‘선생 김봉두’에서 배우들이 독특한 억양으로 “이기 뭐나?”, “배애미가 물문 망이 아과?” 등의 말을 할 때, 강원도 말이 익숙하지 않은 관객이라면 아마도 이 말에 얽혀서 실려 오는 생경한 리듬과 억양에 대해서 특별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강원도 말이 경상도 말 못지않게 굉장히 억센 듯하면서도 율동적이라는 인상을 느낄 것이다. 이런 영화나 방송 매체들의 영향 때문인지 예전보다는 쉽게 강원도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강원도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볼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화나 방송 매체에서 구현되는 강원도 말을 강원도 말의 전형으로 생각하고, 이런 말이 마치 강원도 말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렇게 영화나 방송 매체에서 사용되는 말은 강원도 전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고 영동 방언권 그중에서도 특히 강릉, 정선, 평창 등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강원도 말은 태백산맥이라는 자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말 또한 다른 특징을 보여 준다. 강원도 말은 크게 태백산맥 동쪽의 영동 방언과 태백산맥 서쪽의 영서 방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서 방언은 경기도 말과 비

슷하여 별로 특이한 것이 없다는 인식 때문인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영동 방언은 강원도 특유의 율동적인 억양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어미나 어휘 등이 있어서 강원도 말을 잘 접해 보지 않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며 단연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강원도 말이라고 하면 경기도 말과 별반 인상적인 차이가 없는 영서 방언보다는 독특한 억양이 살아 있는 영동 방언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 1. 억양으로 고향을 구별하는 강원도 사람들

강원도 말 특히 영동 방언의 가장 특징을 들라면 당연히 말에 얽히는 특이한 억양이라고 할 수 있다. 억양은 강원도 내에서도 약간씩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은 거기가 거기 같다고 느낄지 모르겠으나, 강원도 사람들이라면 자기 고향 사람인지 아닌지 억양만으로도 쉽게 구별한다. 강릉과 삼척의 중간에 위치한 동해에 장이 서면 인근 지역의 강릉, 삼척 사람들도 장을 보러 동해에 오게 된다. 강릉, 동해, 삼척은 서로 인접해 있지만, 몇 마디의 말을 들어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억양을 통해서 ‘이 사람은 강릉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삼척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필자는 강릉 출신의 시인이자 강릉 말 전문가인 김인기 선생님과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사용하는 강원도 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필자는 이 영화에서 사용되는 말이 당연히 강릉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분으로부터 이 영화에서 사용되는 말이 강릉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평창 말이 조금 섞여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국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말은 순수한 강릉 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강원도 말 특히 영동 방언의 경우는 인접한 지역이라도 미묘하게 느껴지는 억양의 차이가 있으며,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런 차이를 알고서 자기 고향 출신인지 인접 지역 출신인지를 아는 것이다.

## 2. 원주/춘천은 경기도 말?, 강릉/삼척은 경상도 말?, 양양/고성은 북한 말?

영서 방언에 속하는 원주, 홍천, 춘천 등지에서 쓰는 말을 들으면 경기도 말과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만큼 영서 방언은 경기도 말과 아주 비슷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방언학자들은 영서 방언을 경기도 말, 서울 말과 함께 중부 방언에 포함시키곤 한다. 그런데 태백산맥을 넘어서 영동 지방으로 오게 되면 말의 형태뿐만 아니라 억양 또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 말이나 서울 말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인상적으로 느낀다. 영서 방언과 차이를 보이는 이러한 영동 방언 또한 그 안을 들여다 보면 강릉/삼척 말, 양양/고성 말이 또 다르다. 강원도 말의 전형이 되다시피한 강릉/삼척 말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경상도 말과 아주 비슷하다는 인상을 느끼게 된다.

필자가 한때 삼척 말을 조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삼척 말을 조사할 때 도움을 주셨던 제보자의 얘기를 빌리면, 제보자가 제주도에 여행을 하러 갔었을 때 강원도 말에 익숙하지 않은 제주도 사람들은 경상도 말 못 지않게 역세 보이는 억양을 구사하는 삼척 사람을 당연히 경상도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다. 이는 강릉/삼척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억양에 있어서나 운율에 있어서나 역센 듯하면서도 율동적인 강원도 말을 경상도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필자는 방언 조사를 위해서 양양과 고성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이 지역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북한 말을 듣는 듯한 인상이 들었다. 비단 필자의 이런 경험이 아니라도 이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은 양양이나 고성의 말을 들으면 한결같이 북한 말을 듣는 것 같다고 한다.

필자에게는 양양이 고향인 한 후배가 있는데, 양양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이후는 줄곧 서울에서 생활했다. 서울 생활을 한동안 하다가 예비군 훈련 때문에 다시 고향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주로 고향 출신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자연스럽게 그 지역 말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예비군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들으면서 후배가 느낀 생각을 말해 주었다.

“군복만 국군의 군복을 입었다뿐이지, 오기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영락없이 북한 군인들이예요. 아니 북한 군인이 우리 군복을 입고 훈련받는 것 같아요.”

고향에 있을 때는 너무도 익숙한 고향 말에 젖어서 이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한동안의 서울 생활을 하면서 서울 말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리라. 그러다 다시 고향을 찾았을 때 듣는 고향 말의 낯섵, 생경함이란!

필자의 후배가 겪은 이러한 경험담은 양양 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 주는 한 단서가 될 것이다.

### 3. 영동 방언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이한 모음 ‘외[jö]’

대학에서 우리말의 소리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면, 우리말에서 소리는 있으되 그 소리를 한글로 표기하기 쉽지 않은 경우를 가끔씩 직면하게 된다. 그런 소리들 가운데 영동 방언에서는 짐승이나 물고기의 쓸개를 뜻하는 단어로 ‘을[jw:ɿ]’을 들 수 있다. 이 소리는 ‘이’와 ‘으’를 빨리 발음했을 때 나는 소리인데, 이러한 이중 모음은 영동 방언뿐만 아니라 경기도 방언이나 충청도 방언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들을 수 없는, 강릉이나 삼척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중 모음이 하나 더 있다. ‘외출 중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위해 따로 남겨 놓은 몫의 음식’을 뜻하는 ‘외[jö]’가 바로 그것이다.

“가아 외:르 나. 되라.”(그 아이 ‘외’를 놓아 두어라.)

“배깬에 나간 사람 외:는 꼭 떠 나:라.”(배깬에 나간 사람 ‘외’는 꼭 떠 놓아라.)

이런 쓰임에서 보이는 ‘외’는 ‘이’와 단모음 ‘외’를 빨리 발음했을 때

나는 소리인데, 강릉·삼척 사람들은 이 단어를 발음할 수는 있으나 써 보라고 하면 아주 난감해하면서 못 쓰겠다는 얘기를 한다.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이 소리를 적을 수 있는 적당한 한글 표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소리는 있으나, 한글로 표기하기 힘든 한 예이면서, 그 소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이중 모음이라 할 수 있다.

#### 4. ‘어디 갔드래요?’는 강원도 말?

한 방송 매체에서 강원도 말을 흉내내며 “밥은 먹었드래요?”, “어디 갔드래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 말이 정말 강원도 말일까? 물론 강원도 사람들은 이런 강원도 말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을 할 터이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적당한 강원도 억양과 함께 사용되는 이런 말에 대하여 당연히 강원도 말이겠거니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내 고향은 강릉이래요(강릉이에요).”

“내가 볼 적에 한 사백 년 거:중(거의) 댕:을 거래요(되었을 거예요).”

이 예들을 보면 문장의 끝에 ‘-래요’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표준어의 ‘-이어요/-예요’에 해당하는 말로, 영동 방언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특징적인 형식이다. 이 ‘-래요’는 또 다른 어미와 결합하기도 하여 “삼촌은 멧쟁이랬어요(멧쟁이였어요).”에서 보듯이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었-’과 결합하여 ‘-랬어요(-래+었+어요)’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었드-’와 ‘-래요’가 함께 쓰여 ‘-었드래요’로 나타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었드래요’는 평안도 방언이나 황해도 방언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형식인데, 이것은 영동 방언에 사용되는 ‘-래요’에다 잘못된 형태인 ‘-었드-’가 결합하여 생겨난 형식으로, 영동 방언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빚어진 결과일 것이다.

## 5. ‘어서 오세유’는 충청도 말?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을 받는 곳 중의 하나로 강원도 동해안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동해안으로 피서를 가기 위해 7번 국도를 따라 강릉을 거쳐 양양 방향으로 가다 보면 외지인들을 가장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푸르디푸른 동해 바다와 ‘어서 오세유’라는 문구가 적힌 인사말일 것이다.

필자는 올여름 처음으로 방언 답사를 위해 양양을 가게 되었는데, 차를 몰고 양양을 들어서다 한 팻말에 ‘어서 오세유’라는 문구가 적힌 인사말을 보게 되었다. ‘어서 오세유’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중팔구는 충청도 말이겠거니 생각할 것이다. 비단 필자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많은 외지인들은 잠시나마 ‘어서 오세유’란 문구를 보면서 ‘웬 충청도 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다. 외지인들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한 인사말을 굳이 충청도 말로 적어 놓을 리는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재미있고 정감 어린 표현을 위해서 이런 말을 써 놓을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왜 굳이 충청도 말을 써 놓았을까? 이런 데까지 필자의 생각이 미치게 되었다. 이런 궁금함을 뒤로 한 채 양양의 말을 조사하면서

“지끔 다 나가고 한 열여섯 집이 있어유.”

“그전에 사는 게 행뻬없었지유(형편없었지요).”

“털기(털게) 이만큼씩 한 기(것이) 여기두 참 살기 좋었어유.”

이와 같이 문장의 끝에 ‘-요’ 대신 ‘-유’를 흔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부터는 필자의 궁금증이 사라지게 되었다. 낯선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친근하고 정감어린 표현을 찾아 건네는 인사말이, 반갑게 외지인들을 맞이하려는 양양 사람들의 정이 그대로 묻어난 표현이 바로 ‘어서 오세유’인 것이다.

## 6. 특이한 문법 형태

영동 방언에는 이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특이한 문법 형태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밥으는 망이 먹어.”(밥은 많이 먹어.)

“베락으 맞아 죽었어.”(벼락을 맞아 죽었어.)

“기냥 사구만 있으면 되능가 헨데 그기 양이랬아.”(그냥 사고만 있으면 되능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표준어라면 ‘먹어’, ‘죽었어’, ‘아니었어’처럼 어미 ‘-어’가 쓰여야 할 자리이지만, 강릉과 삼척에서는 반말체 종결 어미로 문장이 끝나는 경우에는 어미 ‘-아’가 사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삼척 말에는 “꿀맛이 참 다다오?”(꿀맛이 참 달다오?), “맛이 우탕다오?”(맛이 어떻다오?)가 쓰이기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의문형 하오체 어미 ‘-오’와 과거의 회상을 나타내는 어미 ‘-더-’가 결합하지 못하여 이런 ‘-더오’ 형식이 불가능하지만, 삼척 말에서는 하오체 어미 ‘-오’와 과거의 회상을 나타내는 어미 ‘-다(-더-)’가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다오’의 형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의문형 하오체 어미 ‘-오’의 변이형으로 ‘-와’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지금 어대 가와?”(지금 어디 가오?), “사랑은 아무나 하와?”(사랑은 아무나 하오?)에서 그 쓰임을 엿볼 수 있다. 평서형 하오체 어미인 ‘-오’의 경우에 “우린 방아 찌:러 방:간에 가왜이.”(우리는 방아 찧으러 방앗간에 가오.), “이쪽으로 오왜이.”(이쪽으로 오오.)에서처럼 변이형 ‘-왜이’로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 영동 방언에서는 “강릉으는 망이 추왔덴나?”(강릉은 많이 추웠었나?), “손님이:가 찾아왔덴아.”(손님이 찾아왔었어.)에서 대과거를 나타내기 위해 ‘-었었-’ 형식 대신에 ‘-엇덴’ 형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양양에서는 “비가 지금 오너?”(비가 지금 오나?), “안덜, 밥을 먹었너?”(부인, 밥을 먹었나?)에서처럼 어미 ‘-나’가 쓰여야 할 자리에 ‘-너’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미 ‘-너’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았’과 결합하여 “옥시기를 땀너?”(옥수수를 땀나)와 같이 쓰이기도 하고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았’과 종결 어미 ‘-너’가 결합한 후, ‘-았너’가 ‘-너’으로 축약되어 “옥시기를 땀?”(옥수수를 땀나?)처럼 나타나기도 한다.